****

**장애를 넘어서,**

모두가 속하고 모두가 섬기는

**2021 겨울호│ 주제: 예기치 않은 접속**

코비드-19 감염증 사태로 인해 우리 모두 장기간의 고립과 격리를 겪는 동안 장애인들은 그동안 오히려 그들의 참여를 가로 막는 장벽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예기치 않은 접속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코비드 기간의 삶은 어떻게 새로운 접속을 열어주는가?**

**미쉘 맥로이,** 델마 개혁교회 (뉴욕 알바니)

지난 한 해 동안 전세계가 다함께 친밀한 관계와 공동체를 잃은 것을 슬퍼하는 동안 저는 문득 매 주일마다 웃음 지을 새로운 이유를 발견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게 스위트 홈과 같은 교회입니다.

지난 수 년간 저는 제 자신이 교회 공동체에 산발적으로 참여하는 기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예측할 수 없는 건강상태 때문이든지 아니면 가끔씩 병치레를 겪는 아이가 집에 있기 때문이든지 저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주일이면 항상 고립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전세계가 느끼는 고립감이 저는 후유증이 컸던 뇌수술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뒤 한차례 고립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에 익숙했다면 저는 고립에 익숙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사랑하며 함께 하는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갈 수 없던 수 주 동안 저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교회 지도부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함께 모이기로” 결정했을 때 새로운 현실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에겐 최악의 날에도 교회 식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집에 있는 것과 휠체어를 간신히 들어서 차에 싣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집 소파에서 혼자 예배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가운 밑에 잠옷 바지를 입으신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팬데믹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정말로 도전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만약 조금 더 가까이 본다면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 경우, 제 건강 상태와 관계 없이 집에서도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교회의 **다른 사람들처럼** 예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 모두 사이에 생겨난 물리적인 거리에도 불구하고 평소와는 다른 함께하는 순간 이었습니다.

저는 포옹과 악수를 하는 것이 다시금 일상규범이 되기를, “줌 교회”가 모두에게 일상이 되지 않는 날이 언젠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 우리 중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선택으로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견뎌온 이 분리가 결국에는 우리를 더 가깝게 해 줄 지도 모릅니다.

**찬송을 부르며 체크인합니다.**

**레슬리 밴 밀리건 목사,** 윌로우대일 북미주개혁교회 (온타리오 토론토)

윌로우대일 북미주 개혁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의 다양한 접근상의 어려움을 언급해 왔습니다. 줌은 교인으로서 모이지 못했던 몇몇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탐 밴 밀리건 목사는 사람들이 온라인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서 교회음악을 열심히 부를 뿐 아니라 격리 기간 동안 서로 보살필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활기차고 성장하는 소그룹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연로한 성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타인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찬양을 부른다는 것의 아름다운 측면 중 하나는 성도 스스로가 어떤 찬양을 부를지 제안하는 것 뿐 아니라 찬양의 역사를 찾아서 그룹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안부와 일상을 나눈 후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룹의 멤버들을 목양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줌 덕분에 이 그룹은 그 동안 저녁 모임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어떤 소그룹 활동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우리는 연결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기술을 통해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윌로우 대일 북미주 개혁교회는 연로한 성도들이 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자신이 가진 익숙한 기기를 가지고 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배도 줌으로 진행하여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어린아이가 1절을 부르고 80세의 노인이 2절을 부르는 것을 듣는 것은 매우 풍성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역자들은 이전 성도들이 주일 아침 줌예배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진 요양원에서도 참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설교 후 묵상을 위한 그룹에도 대면 예배에 오지 못했던 성도들로 북적거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의 발전은 중국에서도 한 남자 성도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관계로 설교 및 기타 다른 사역 프로그램에도 통역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들은 현재 줌의 동시통역 지원 및 페르시아어 사용자들이 함께 설교 내용을 묵상하고 설교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브레이크아웃 룸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페르시아어 사용 그룹 및 일반 회중들이 거리의 제한 없이 새신자들을 예배와 교제에 초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섬기고 섬김 받기 위해 느리게 살기**

**데이빗 조머 목사,** 베다니 개혁교회 (미시간 칼라마주)

팬데믹 기간동안 하나님은 제 삶과 제가 섬기는 누군가의 삶의 시간과 공동체와 관련한 개인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칠십 세에 가까운 캐롤린은 평생 베다니 개혁교회 성도였습니다. 저는 베다니 교회에서 자랐고 수 십년이 지난 지금은 베다니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제 평생 동안 캐롤린을 알아왔지만 올해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캐롤린은 그녀 자신의 끈기와 고집 덕분에 언제나 독립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캐롤린은 버스 시스템에 의지하였지만 교회에 전화해서 차를 태워달라고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캐롤린이 예배나 교회 모임에 불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항상 참석했지만 교제에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팬데믹은 교회 안의 우리 모두의 속도를 강제로 늦추었습니다. 회의, 모임, 성경공부도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교회 예배 중 일부는 수 주 전에 미리 녹화할 수 있게 되자 저는 묵상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제게 지금이 속도를 늦추고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캐롤린이 제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다른 누군가에게 캐롤린을 돕는 것을 맡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화로는 그녀의 부탁을 이해하기 어렵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집에서 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직접 그녀를 태웠습니다. 캐롤린이 은행에 신분증을 두고 온 것 때문에 은행에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도움을 주기 위한 만남은 팬데믹 기간 동안 정기적인 만남으로 발전했습니다. 공원으로 피크닉을 가기도 하고, 호수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고, 그녀의 친척이 묻힌 곳을 찾기 위해 묘지에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사로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오랜 시간을 가지면 그녀가 소통을 매우 잘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캐롤린의 신앙의 깊이는 존경할만 한 것이었고 칭송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동안 저는 하나님이 저라는 목사의 “시간이 없는” 혹은 “시간을 내지 못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줄곧 주변부에서 맴돌던 그리스도 안의 한 자매를 통해 풍성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갇힌 상황에서 찾는 돌파구**

**로리 웨스트,** 헤리티지 펠로우쉽 북미주 개혁교회 (온타리오 브램튼)

저는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 제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예. 저는 방금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시간 예배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모든 사람들의 취향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지만 제게 있어서는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의 예배로 접속할 수 있었고, 뉴파운드랜드의 부흥하는 교회의 (제가 베이비시팅 했었던)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제 조카의 가족이 그들의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 하나인 에스더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팔로우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에스더의 삶이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에도 관련이 깊다고 믿습니다. 에스더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이 몰살되는 것을 막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을 느낀 적이 있나요?

꼼짝 못하고 갇혀 버리는 상황은 느닷없이 우리에게 닥치고, 너무 오래 계속 됩니다. 병은 낫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은 악화되고, 틀어진 관계는 더 복잡해지며, 지체는 길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해결책이나 돌파구는 절망적이게도 손이 닿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용기를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걸으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인생의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1) 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글은 개인 묵상을 담아 스스로 출판한 Lori’s Scribble의 2020년 10월 26일판을 각색한 것입니다. 로리는 진행형 신경운동계 질병을 갖고 태어나 휠체어에 의지하며 침묵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난 4년간 그녀는 장기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팬데믹 상황에서의 접속**

우리는 우리가 해 왔던 것들을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만큼 어떤 것들은 이제 영원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 또한 (어떤 점에서는 보다 나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를 넘어서> 의 겨울호는 팬데믹을 겪으며 예기치 않게 새로운 접속의 장을 발견한 장애우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타인과 접촉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등한 방식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 및 기도 모임에 참여하며, 과업지향적인 삶의 속도를 늦추고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팬데믹으로 인해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 구체적인 예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저는 2주간 동부에 가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열흘 전에 여행제한 및 자가격리 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제 모든 계획은 취소되거나 잠정적으로 보류되었고 저는 그 이후로 재택근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저는 회의도 열고, 제가 사는 도시에 위치한 교회들 뿐 아니라 800 마일 떨어진 교회에서도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개혁교회-북미주 개혁교회 장애우 사역부는 매년 8월 3일간의 리더십 훈련을 대면 행사에서 2일간의 온라인 모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보통 소요되는 경비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온라인 모임은 장애 때문에 미시간으로 올 수 없었던 우리의 동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했고, 그 동안 한 번도 참석할 수 없었던 다른 나라와 다른 대륙에서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을 자유롭게 초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접촉을 한다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그리고 지금과 같은 예기치 못하고 변화하는 때에 종종 인내, 결단력, 창의성, 계획수립 및 민첩성을 요구합니다.

—테리 드영

**다음호 주제**

**2021년 봄호—인종과 장애** 다니엘 프루드가 흑인이 아니었거나 장애우가 아니었다면 아직 살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흑인, 토착민, 혹은 유색인종 이고 장애가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 (400단어)를 1월29일까지 보내주십시오.

**2021 여름호—예술과 장애** 만약 여러분이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시, 짧은 이야기, 사진 혹은 여러분이 만든 작품을 찍은 사진을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글은 400단어로 분량입니다. 4월 2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온라인 포맷**

bit.ly/bbwinter2021네트워크 웹사이트의 “장애를 넘어서”로 가시면 이번 호를 다양한 역본으로 (인쇄하기 쉬운 판형, 오디오, 스페인어, 한국어 등)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를 넘어서>의 과월호와 스페인어 및 한국어 역본, 온라인 구독을 위한 링크는 CRC 웹사이트 ([www.crcna.org/disability](http://www.crcna.org/disability)) 혹은 RCA 웹사이트([www.rca.org/disability](http://www.rca.org/disability)) 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CRC 와 RCA장애우 사역부가 공동 출판한 이번 호 및 장애우 사역부 블로그 ([network.crcna.org/disability](http://network.crcna.org/disability)) 는 2020년 연합교회신문 (Associated Church Press) 으로부터 각각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 장애를 넘어서 (소식지 부문) 와 네트워크의 장애우 사역부 (블로그 부문)

© 2020 CRC/RCA 장애우 사역부

<장애를 넘어서>는 CRC 장애우 사역부 (1700 28th St. SE, Grand Rapids MI 49508-1407 및 P.O. Box 5070, STN LCD 1, Burlington ON L7R 3Y8)와 RCA (4500 60th St. SE, Grand Rapids MI 49512-9670) 의 CRC 장애우 사역부 디렉터 마크 스티븐슨 목사(888-463-0272; mstephenson@crcna.org) 와 RCA 장애우사역부 코디네이터 테리 드영 목사(616-541-0855; tdeyoung@rca.org)가 펴내는 계간지입니다. 출처를 밝히시면 전재와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북미주 개혁교회와 미국 개혁교회가 함께 섬기는 장애우 사역

www.crcna.org/disability • www.rca.org/disability